

# 일본 농촌 활성화정책의 반성적 과제와 가능성



도쿠노 사다오 교수  
일본 쿠마모토대학

## 1. 20세기형『인구증가형 패러다임』으로부터 탈각

### 가. 일본의 인구동태와 지역사회의 변화 <그림1>

- 메이지(明治)기(1868~)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급격한 인구감소
- 1960년 이후 고도경제성장기와 더불어 도시화와 과소화(인구의 사회이동)
- 1960년 이후 농산촌의 과소화, 고령화, 소자화(小子化)의 동시진행
- 1960년 이후 산업·취업구조의 변화(농업사회 → 산업사회, 겸업화의 진전)

### 나. 급격히 변화한 가족구성(핵가족화 → 극소가족화)과 고령화 사회

- 단독 세대 25.6%, 2인 세대 23.0%, 3인 세대 18.6%(2000년) <그림2>
- 고령화사회복지대책과 고령화사회대책의 혼동(인생 80살부터 시작)
- 도시 타출자(他出子)관계의 재구축(「T형 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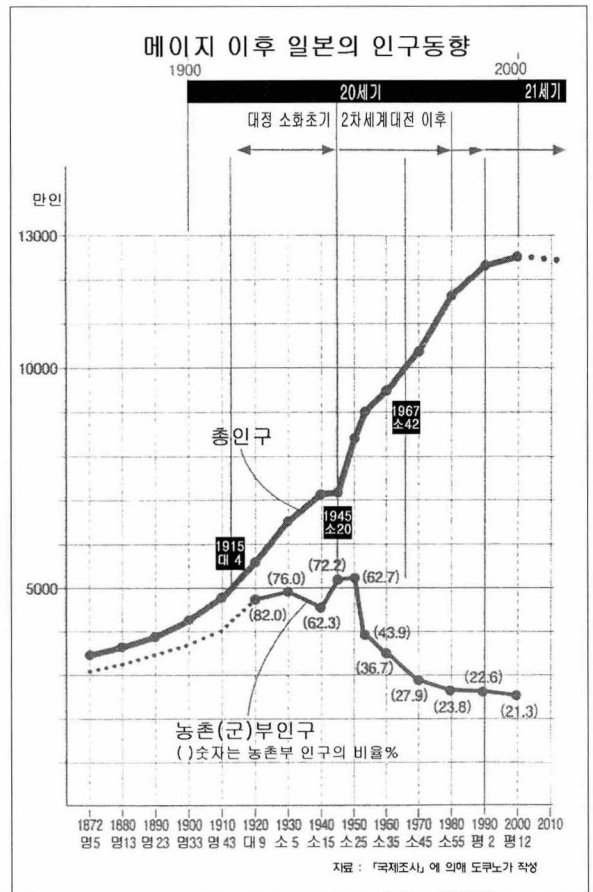


그림1. 일본의 인구추이의 개략도와 20세기의 인구폭발

락점점」의 유효성)

다.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용기 있는『지역축소 계획』의 필요성

- 「전국종합개발계획」 → 「균형적인 국토형성 계획」(인구증가/경제발전)
- 정주인구론으로부터 교류인구론으로 사기적 전환(1990년대) → 도시농촌교류론  
젊은 노동력, 농산물가격의 저미, 농지자원, 농촌문화의 수탈 → 『소비되는 농촌』
- 종합적 경제사회정책과 농업의 현대적 자리매김, 자동차사회의 활용과 『지우개 기능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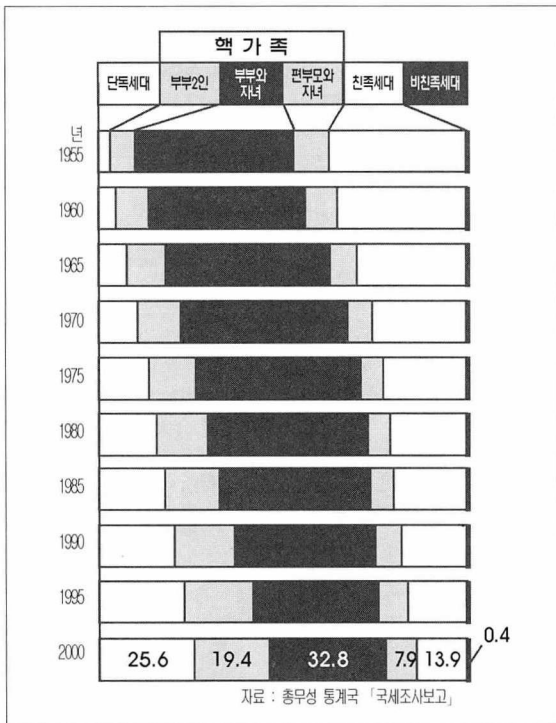


그림2. 가족유형별 세대의 할합(보통세대)(%)

2. 농업·농촌의 현대적 자리 매김

가. 농(생활으로써 農)·농업(산업으로써 農業)·농적 세계 (도시인의 반근대화 감정) <그림3>

나. 산업진흥정책으로서의 『農業政策』(기본법 농정)으로부터 지역유지정책으로서의 『農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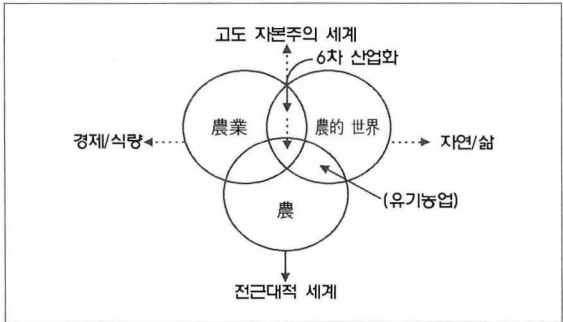


그림3. 「農」의 3세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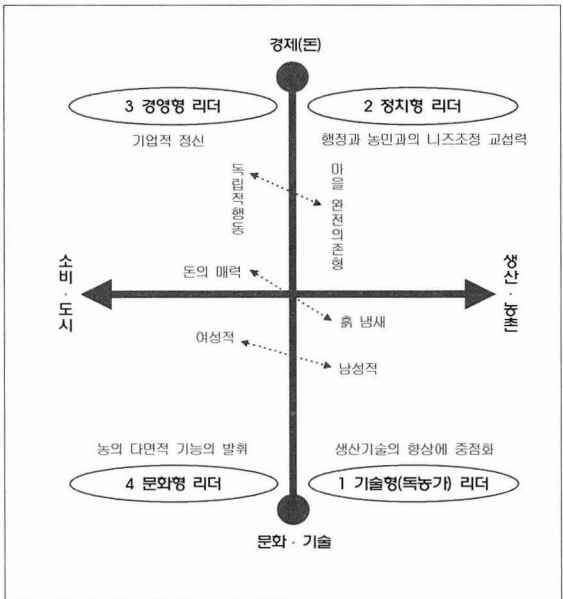


그림4. 생산자의 4분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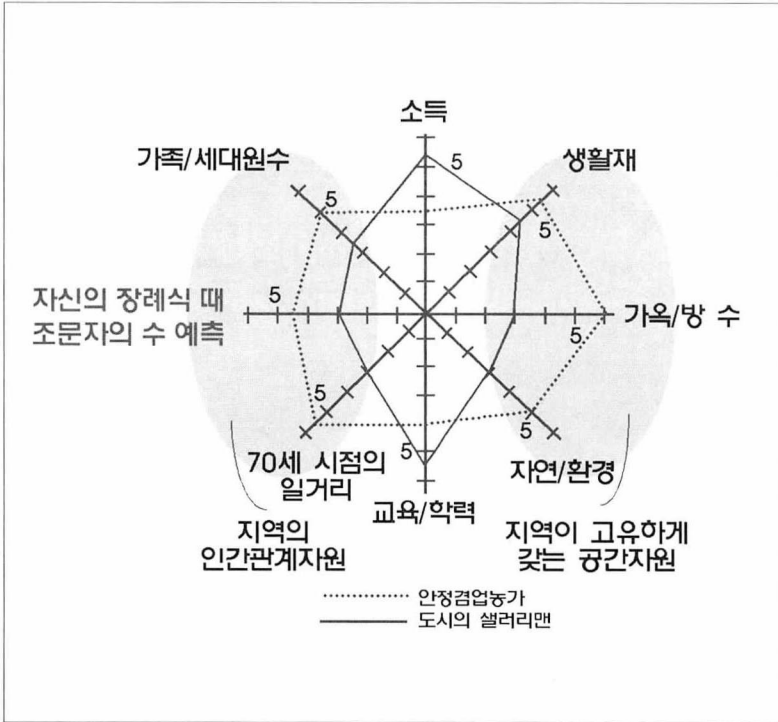


그림5. 도시의 샐러리맨과 안정겸업농가의 생활사회 지표

- 전업농가(유기직거래형, 6차 산업형, 산지형성형)과 「농업인의 4유형」(그림4)
- 중핵겸업농가의 사회적 자리매김(개인수준의 「사회생활지표」)(그림5)
- 수도작은 「경제작물이 아니라 마을(지역)維持작물」
- 일본농업의 우위성 - 세계 제1의 부자소비자 존재 → 「소비자의 4유형」(그림6)

다. 한일 농업·농촌에 대한 자리매김의 차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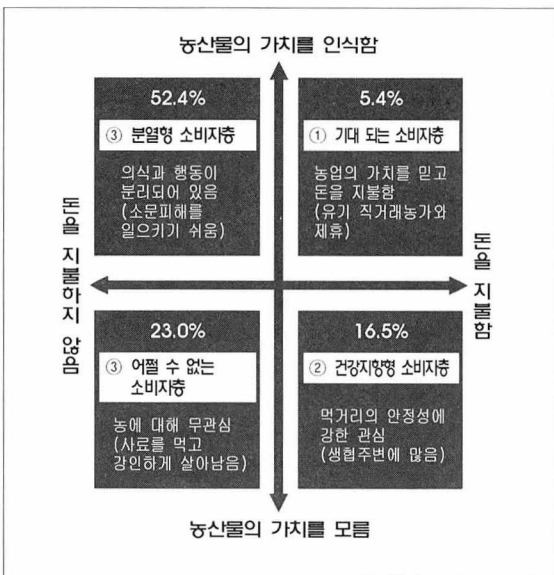


그림6. 소비자의 4분류

- 한국의 전업농가 비율이 높음.(겸업화의 기피, 尊農사상의 유무, 역사적 요인)
- 한국의 환경보전형 농업 정책적전개의 선진성(對 WTO대책)



제1회 한일 농촌지역 활성화 토론회. 도쿠노 사다오 교수 발표

○ 한국의 행정주도형 정책(녹색농촌체험마을 vs 전통테마마을)

### 3. 농업·농촌의 가능성을 향해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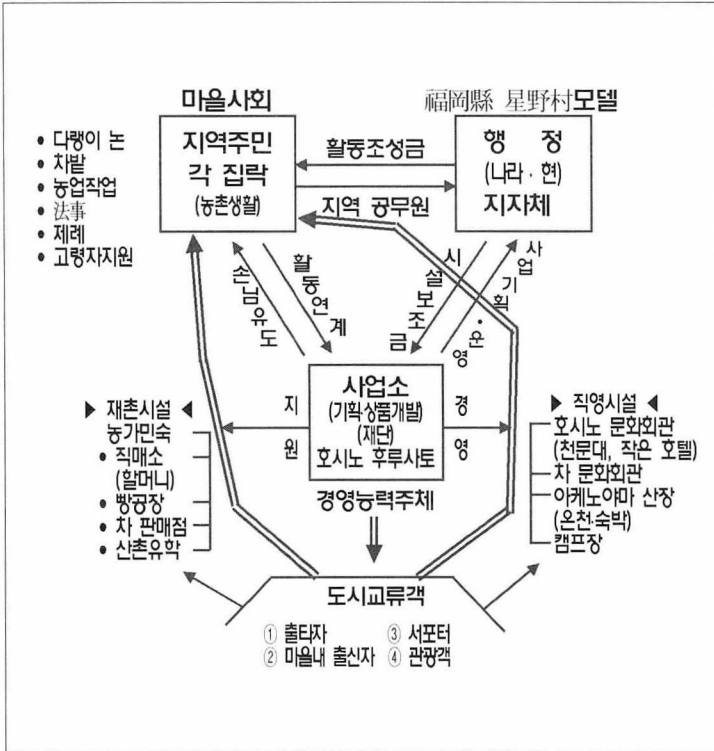


그림7. 도시농촌교류·사업모델

가. 농·농업·농적 세계의 일관적 경영체의 형성 <그림7>

- 『미치노에끼(道の驛)』구상과 지역경영자 육성
- 『전국농촌네트워크21』활동. — 모쿠무쿠팜, 부도우노키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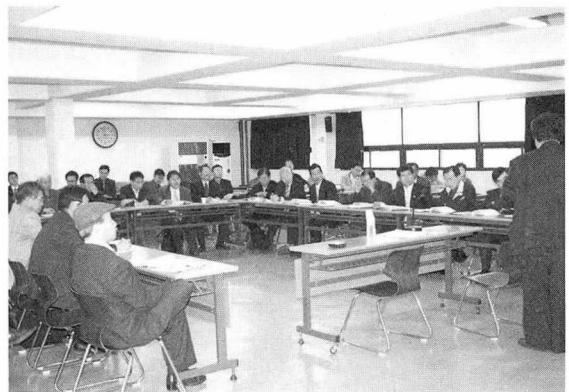
나. 「다마시(魂)공동체」구축을 향해서

- (자연 = 농 = 노동)이 갖는 사상·관념과 先祖觀·역사성

다. 현대도시생활에 미치는 농업·농촌 기능의 재평가 = 21세기의 그랜드디자인 ㉔



제회 한일토론회 토론장면(오른쪽부터 도쿠노교수, 박시현박사, 유상오박사)



제회 한일 농촌지역 활성화 토론회-실기 좋은 농촌, 살고 싶은 농촌 가꾸기